

'마음건강 위기' 주민 발굴 맞춤 지원

노원구, 공동 '마음있다' 센터 개설... 내달 가동 심리검사·상담·일상회복 지원... 전문가관 연계도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주민들의 심리적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하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마음건강지원센터 '마음있다'를 오는 7월부터 본격 운영한다.

2일 구에 따르면 센터는 공동 도래비시장 인근 동일로 1036에 마련했으며, 상담 전문인력 등

이 상주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센터에서는 초기 상담과 심리검사, 개인·가족·집단 상담을 비롯해 마음건강 교육과 일상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상담, 복지, 보건 분야의 지역 기관과 연계해 필요한 서비스를 원주민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센터 조성은 우울과 불안, 사회적 고립 등 마음건강 문제가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면서 심리적 위기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지원으로 연결할 수 있는 공동 상담체계의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구는 그동안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어르신상담센터 등을 운영해 왔으며, 최근에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청년심리상담센터를 개소하는 등 상담 인프라를 확대해 왔다.

마음있다는 직접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내 상담·복지·보건기관을 연결하는 거점 역할도 맡는다. 생애주기별 상담은 물론 학교 밖 청소년과 성 상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서비스 연계도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구는 지난 12일 개소식을 열고 지역내 유관기관들과 함께 마음건강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 향후에는 정신건강과 중독, 치매 등 분야별 전문가관과의 연계를 강화해 보다 촘촘한 지원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박진기 기자 jim@siminilbo.co.kr

수원시, 51곳서 '디지털배움터' 무료 운영

AI 활용등 맞춤형 교육 제공 연말까지 온라인 교육도 병행

경기 수원시가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지역내 51곳에서 '2026년 디지털배움터'를 운영한다. 디지털배움터는 인공지능(AI) 기술 변화와 디지털 전환 시대에

시민들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한 교육 공간이다. 수원시가족성회관 거점배움터와 지역내 파견교육장 등 총 51곳에서 운영된다.

시민들의 수준과 필요에 맞춰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운영한다. 디지털 기초 활용부터 인공지능(AI) 활용, 미래 직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역량 강화 교육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수원시민은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집합·온라인·찾아가는 교육을 병행한다.

교육이 불편한 시민을 위해 '예뉘버스' 3대도 운영한다.

수원·영남권 기자 lim@siminilbo.co.kr

'AI 자율주행차 탐구' 과학캠프 개설

용산구, 오는 8월3~8일 용산아트홀등 3곳 운영 초등생 4~6학년 54명 선발... 내달 3일까지 모집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여름방학을 맞아 지역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2026년 여름방학 창의과학캠프'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캠프는 용산아트홀, 용산구평생학습관, 용산글로벌교육지원센터 등 3곳에서 운영된다. 용산아트홀과 용산구평생학습관은 오는 8월3일부터 7일까지, 용산글로벌교육지원센터는 8월4일부터 8일까지 각각 진행된다. 수업은 반별로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5일 과정으로 운영된다.

올해 캠프 주제는 '달려라! 자율주행 인공지능(AI) Car'로, 학생들이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기술의 기본 원리를 직접 체험하며 이해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교육은 ▲인공지능(AI) 기초 ▲모터와 센서의 원리 이해 ▲이노비노 보드 사용법 ▲코딩을 통한 인공지능(AI) Car 제어 ▲자율주행 실습 등으로 구성된다. 캠프는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창의교육센터가 위탁 운영해 전문성을

더할 예정이다.

모집 대상은 지역내 초등학교 4~6학년 학생으로, 총 54명을 선발한다. 신청은 7월3일까지 용산구교육종합지원센터 가능하며, 모집 인원을 초과할 경우 전산 추첨으로 참가자를 선정한다. 참가비는 5만원이며,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박희영 구청장은 "이번 창의과학캠프가 아이들에게 과학에 대한 흥미를 키우고, 인공지능(AI) 시대를 이끌어갈 창의성과 바른 인성을 갖춘 미래 인재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윤 기자 mmh@siminilbo.co.kr



업무협약에 참석한 박용철 군수(왼쪽 세 번째)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인천 강화군, '퇴원환자 통합돌봄' 확대

인천·김포 병원 3곳과 추가협약 인근지역 서비스 연계범위 확장

인천 강화군이 지난 23일 고령층 퇴원 환자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김포대학병원, 김포유리병원, 뉴그리병원과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

이전 협약에 따라 협약병원은 퇴원을 앞둔 강화군 거주 노인 가운데 지역사회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해 강화군에 연계하고, 군은 건강관리, 장기요양, 재가돌봄, 주거환경 개선, 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게 된다.

이를 통해 퇴원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필요한 재입원을 예방하는 한편 노인들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

을 지원한다.

군은 앞서 지난 2월 지역내 비에스종합병원, 강화병원, 강화요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5월에는 인천지역의 나누리(주), 인천(병원), 인천백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에 김포지역 병원 2곳, 인천 시내 병원 1곳과 협약을 추가해 체결하면서 강화군민의 이용이 많은 인근 지역까지 연계 범위를 넓히게 됐다.

인천·문진식 기자 mcs@siminilbo.co.kr

유아숲체험원서 여름방학 체험프로

관악구, 청룡신동 6곳 진행 유아숲지도사 전 일일 동행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여름방학 기간 동안 '유아숲체험원 여름방학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유아숲체험원은 숲을 교실로 삼아 자연물을 매개로 다양한 체험수업을 진행하는 유아 전용 놀이 공간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실제 활동에 익숙해진 아이들이 숲에서 마음껏

놀며 자연의 소중함을 배우고 건강한 여름 추억을 쌓을 수 있도록 마련했다. 아이들은 숲속을 직접 보고, 듣고, 만지며 관찰하는 오감 체험을 통해 생명의 신비와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자연에 대한 호기심과 창의적 사고를 키울 수 있다.

올해 여름방학 프로그램은 청룡신, 낙상에 등 지역내 유아숲체험원 6곳에서 운영된다. 유아숲지도사 전 일일 동행에 동행해 안전하고 유익한 체험을 지원할 예정이다.

청룡산 유아숲체험원에 있는 식

물의 변화를 살펴보고 오감으로 느끼며 자연 소리를 활용한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들꽃 모지 만들기'와 '술바라기 식물'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바드' ▲대학동 '초록 배 밧 놀이', '선우 숲의 밧 곤충보따리' ▲삼성동 '숲속 컬링' ▲낙상대 '나뭇잎으로 작품 만들기' ▲삼곡동 '메기까 껌이하는 숲' 등 체험원별 특성을 살린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특별프로그램은 오는 7월 7일부터 8월 14일까지 체험원별 일정에 따라 운영되며, 유아를 동반한 가족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문진식 기자 mmh@siminilbo.co.kr

마포구, 출산·조부모 육아 맞춤형 코칭

내달 토크예비부모교실 진행 손주돌보기교실 2회차 운영

서울 마포구(구청장 박강수)가 아이를 처음 맞이하는 예비부모와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를 위한 맞춤형 출산·육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최근 맞벌이 가정 증가와 가족돌봄 형태 변화로 예비부모뿐 아니라 조부모의 육아 참여도 늘어나고 있다. 이에 구는 예비부모를 위한 '토크예비부모교실'과 조부모 대상 '우리손주돌보기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해 출산 준비와 육아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강남구, 내달 3일 전문의 강연

'자녀 자기조절력' 양육법 특강 강남구, 내달 3일 전문의 강연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오는 7월3일 오후 2~5시 삼성생명 일원역빌딩(일원로 115) 9층 히로코테라스에서 자녀의 자기조절력과 부모의 양육법에 대해 '전문가의 함께하는 마음성장 특강'을 개최한다.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가 주최하고 강남구청소년심리지원센터(시립이)가 주관하는 이번 특강은 아동·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 해결을 돕기 위해 실시되고, 부모에게 올바른 양육 원칙을 안내하는 데 초점을 맞춰 진행된다.

'영어인과 영어 그림책 읽기' 의정부에서도서관, 내달 개강

경기 의정부에서도서관은 오는 7월11일부터 어린이들의 활기찬 여름방학을 위해 '영어인과 함께 하는 영어 그림책 읽기' 공개강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Summer Splashing'을 주제로 매 주 권의 영어 그림책을 함께 읽으며 관련 어휘와 표현을 익히고, 다양한 후 활동들을 통해 영어와 책에 자연스럽게 친숙해질 수 있도록 마련했다.

인정홍 기자 mjh@siminilbo.co.kr

포구보건소 2층 보건교육실에서 진행

'우리손주돌보기교실'은 손주 돌봄을 맡은 조부모를 위한 육아 교육 프로그램이다. 최신 육아 정보를 제공해 세대 간 육아 방식의 차이를 줄이고 부모 세대의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했다.

교육에서는 수면 교육과 모유수유, 애착 형성 등 최근 육아 정보를 소개하고 교육이 이론과 이기 돌보기 실습을 병행한다.

프로그램은 격일로 운영되며, 7월 교육은 7월9일과 16일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마포구보건소 2층 보건교육실에서 진행된다. 1회차에는 신생아의 특징과 우는 아기가 달래기, 수면 교육 등 육아 전반에 대한 이론 교육을 실시하고, 2회차에는 신생아 안기과 목욕시키기, 속싸개 짜기 등을 실습한다. 수강 과정 도중에는 400여명 수강료는 무료다.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마포구 평생학습포털 또는 마포구보건소 전화 접수로 신청할 수 있다.

마포구보건소 관계자는 "육아 환경이 빠르게 변하면서 부모는 물론 조부모에게도 새로운 육아 정보가 필요해졌다"며 "예비부모와 조부모가 교육을 통해 육아에 대한 부담을 덜고 자신감을 높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윤 기자 mmh@siminilbo.co.kr

간추린 뉴스



지난 23일 민백초등학교 교동 캠퍼스 개업식에 참석한 최태호 시장(왼쪽 두 번째)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안양시 민백초교 학생들 '인심통행로' 감사사업 전달

경기 안양시의 보행 환경 개선 사업이 아이들의 안전한 등굣길을 책임지며, 민·관 소통 행정의 모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안양시는 지난 23일 오후 4시30분 시청 집전실에서 '민백초등학교 교동 캠퍼스 개업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최태호 안양시장과 시 관계자, 민백초 학부모와 임원들이 참석했다.

통학로 보행 환경 개선 사업은 올여 초 시가 민백초 학부모회 등과 협조해서 직접 소모하며 수렴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

해 추진했다.

시는 귀로도와 부림로 일대 주요 보행로인 민백초 정문 앞, 초인리(가파르) 사거리, 풍주유소 삼거리, 백영고 사거리로 대한학부모 요청 사항 24건에 대한 개선을 완료했다.

주요 개선 사항으로는 ▲노란색 발보 울타리 교체 ▲우회점 신호등 및 안내 표지판 설치 ▲어린이 보호 구역 지정 확대 ▲횡단보도 경지선 후방 이동 등이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시의 새상한 통학로 정비에 감사함을 표하는 학생들이 직접 쓴 엽서가 최태호 시장에게 전달됐다.

안양·송윤근 기자 ygs@siminilbo.co.kr

강북구, 생명존중안심마을 안전망 구축 바차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승호)는 지역사회 중심의 자살예방 안전망 구축을 위해 생명존중안심마을을 조성해 추진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최태호 안양시장과 시 관계자, 민백초 학부모와 임원들이 참석했다.

통학로 보행 환경 개선 사업은 올여 초 시가 민백초 학부모회 등과 협조해서 직접 소모하며 수렴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

강동구, 천호2동서 주거복지 이동상담소 운영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수희) 천호2동이 최근 강동구여성인성종합센터와 함께 천호2동 주민센터에서 '찾아가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생활지원사업' 설명회와 '찾아가는 주거복지 이동상담소'를 운영했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생활지원사업'은 방직동, 고신동, 여관동 등 취약한 주거 환경에 거주하는 주민이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상담을 진행했다.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성북구 달빛동지 입소자들 '클리닝데이' 봉사활동

서울 성북구(구청장 이승로)는 달빛동지 입소자들이 시설 및 지역사회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달빛 클리닝데이'를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성북구 하월곡동에 위치한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영유아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경제적·심리적·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활동은 단순한 환경정화 활동을 넘어 도움을 받는 수

해자의 역할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봉사자

자 나눔을 실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됐다.

인소자들은 두터운 날씨 속에서 시설 주변과 지역 곳곳을 청소하며 쾌적한 환경 조성에 힘을 보탰다.

활동 과정에서는 주변을 지나던 지역 주민들을 인사를 나누며 나눔 활동을 알리는 시간도 마련됐다. 주민들은 "골목이 깨끗해져서 마음이 깨끗해지는 기분이다. 너무 고맙다", "너는 날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을을 위해 이렇게 애써주시는 이웃이 있다는 사실에 감동받았다"고 말했다.

문윤 기자 mmh@siminilbo.co.kr

오산시, 시청 어린이집서 1회용품 줄이기 교육

경기 오산시는 지난 23일 오산시청 어린이집에서 일일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교육 프로그램을 '다시쓰는 지구교실'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어린이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물건들 통해 1회용품과 다회용품의 차이를 알고 재사용이 이해하고, 환경보호와 자원순환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마련했다.

교육은 ▲1회용품과 다회용품 구별하기 ▲순은 1회용품 찾기 체험 ▲쓰레기과 음식 배우기 ▲오산시에 맞는 지구지킴이 선언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체험형 프로그램을 활용해 놀이와 학습을 접목함으로써 참여도를 높이고 올바른 환경생활 태도를 도왔다.

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미래세대인 어린이들이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자원순환 문화를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정홍 기자 mjh@siminilbo.co.kr